

日本交通交社海外旅行虎の門支店（担当：林 信宣）

### 四、 죽음은 成長단계의 최 종단계

앤디자벤 K 로프라는 정신과 의사는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기술과 이해가 있어도 누구나 죽고있으나 어려운 것은 살다는 것입니다. 죽을때까 지 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을 때 이 생애하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때 죽을 때에 있어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연구에 있어서는 세력보다도 우리를 성찰케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므로 「죽음은 우리 인간 의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였을 것이다.

죽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 하고 배운 것은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는 다음 다섯가지 단계를 거치는 죽음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절입니다. 처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죽는다고? 아니, 전단이 잘못 되었겠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분노와 격분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 하고 남들이 다 건강하게 살 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자기 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흥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죽는다. 그 러나...」 죽는 것은 확실하 나 이제 흥청하게 되며 다만 며칠만 살게 해 달라고 만 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둘을 향하여 흥청하게 됩니다.

넷째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서러워하 고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섯째로 죽음을 받아들임

다섯째로 죽음을 받아들임 이 뒤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것은 죽음을 전후해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죽음을 전후해서 뜻 이 있다고 믿고 또 죽는 순간까지 살아야 하고 뜻 있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우리들에 게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뜻 있게 사는 것이 죽음 후의 우리의 생애에 관계가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기전까지 살아야 하고 성장, 발달해야 한

## 죽음은 성장의 최종단계

마태 26장 36-46

康 恩 弘 牧 師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 나 이제는 괜찮다」 이것은 행 복한 때는 아니나 불행한 때 도 아니다. 감정이 없는 상 태이나 포기한 것은 아니라 도리어 승리한 것이다.」 고 로 쓰바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우리 보살핌과 같은 다섯가지 단 계의 죽음의 경험을 거친 것 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는 여기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뒤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것은 죽음을 전후해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죽음을 전후해서 뜻 이 있다고 믿고 또 죽는 순간까지 살아야 하고 뜻 있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우리들에 게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뜻 있게 사는 것이 죽음 후의 우리의 생애에 관계가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기전까지 살아야 하고 성장, 발달해야 한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죽고 하나니게 돌아갈 때 「착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 가운데 참여하 지 않도」 하는 것이 죽음에까지 살아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니의 명령인

## 西宮教会에 金得三牧師委任



金得三牧師

西宮教会에 赴任한 金得三牧師의 委任式이 지난 5월 27日(日) 午後三時 本教会 信徒와 西宮地方教会에서 約 二百名이 參席하여 盛大히 挙行되었다.

委任式은 堂會長 尹宗銀牧師의 司式으로 西宮地方會 會長 李昌雨牧師의 祈禱, 總 會 會 道 道 長 金元治牧師의 「인 會에서 오는 義」(은혜) 로 마 三장 21-26) 단 제목의 說教, 委任받은 金得三牧師는 西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은 金得三牧師의 答辭, 祝文, 祝電, 祝品의 披露, 教會代表 金永濤牧師가 인사말을 한 후 金得三牧師의 祝詞로 委 任式을 閉속히 마쳤다.

委任받은 金得三牧師는 西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은 金得三牧師의 答辭, 祝文, 祝電, 祝品의 披露, 教會代表 金永濤牧師가 인사말을 한 후 金得三牧師의 祝詞로 委 任式을 閉속히 마쳤다.

委任받은 金得三牧師는 西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南地方會의 熊本教會에서 오

은 金得三牧師의 答辭, 祝文, 祝電, 祝品의 披露, 教會代表 金永濤牧師가 인사말을 한 후 金得三牧師의 祝詞로 委 任式을 閉속히 마쳤다.

## 第二回教師研修會案內

## カリキュラム設定も試図

總教會教育局(局長 金得植牧 師)에서는 第二回全國教會學校 の研究と交流の集いを八月に大 阪教會で開きます。要旨は次の 通り。

總教會教育局は、教會學校教 師と教育主事たちと協力の上で 今年には總教會の教會學校カリキ ャラム設定を試図して、教師たち との共同作業によって、旧約と 新約聖書から、それぞれ六教程 のテキストを学びつつ、在日同 胞の置かれている歴史状況で關 する神の言葉を新しい世代に向 けて語れるようになりたい。

教師たちより自覺して結果し ょう。各教會は熱いお祈りと支 援を。

八月七、九日、二泊三日、新 築の大阪教會の教育館を場所 にして開かれる。会費は七千円で 遠方からの参加者は旅費全額が 支給される。京阪神の働いてい る教師の部分参加(夕方のプロ グラム)を歓迎する。

## 全高夏期學校

全國高生夏期學校を今年も 開校する予定です。くわ しいプログラムは追って連絡し ます。

## 全協研修會

青年會全國協議會主催による 夏期研修會が次のように開かれ る。全國の教會青年の積極的な 参加と教會からの經濟援助(参 加費等)を含めた協力と、多く の青年を送り出してほしい。

## 関西婦人会 修養會

開催要項  
日時 七月二十六日(木) 一 二八日(土)  
場所 有馬温泉「ユニ八重 菊」 兵庫縣有馬温泉  
主題 今日の宣教  
講師 金鳳雲傳道師(大韓會 主教長老會) 安聖蘭傳道師(神 戶東部教會)  
参加費 一四、〇〇〇円(申 請金二、〇〇〇円、参加費一二、〇〇〇円)  
 마감 七月八日(日) 必着  
携行品 聖經、讃頌歌、寝巻 洗面用具、筆記用具、其他  
※当日(七月二十六日)午後 三時 現地集合  
申請 吳壽恩宛  
大阪生野区中川西一六十一 婦人會関西地方連合會

運輸省認可

金 本 海 運

(創業 1934 年)

代 表 金 連 伯

事務所：東京都港区新橋3-13-3富士第二ビル

電話 03(436)1036 番

自 宅：横浜市神奈川区六角橋3-4-7

電話 045(491)5955 番

運輸省認可

新 盛 運 輸

代表取締役 金 哲 淳

事務所：東京都港区新橋3-13-3富士第二ビル

電話 03(436)1036 番

自 宅：横浜市神奈川区六角橋3-4-7

電話 045(491)5955 番

Coffee Shop

喫茶 シオン

李 永 欽

横浜市南区高根1-3

電話 045(252)6999

(231)1860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 ~ 2 番  
レストラン部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 番

# 在日同胞にとっての

## 「国際人権規約」批准の意味

RAIK情報15

国際人権規約が日本でもようやく批准されたが、在日同胞にとってこの規約がどのような意味と効力を持つのかをかんたんにふれてみたい。

国際人権規約は、A規約とよばれる「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とB規約とよばれる「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の二つからなっている。規約の精神は、人間の尊厳を守るとい

う原理から基本的人権を国際的に保障しようとする考えにもとづき、内外人平等を原則にしている。この規約はいわば日本国憲法の上にもうひとつ憲法が制定されたと考えてもよいものであるが、日本がこれまでこの規約を批准しなかった背景には、在日同胞の処遇をめぐる問題が、大きくからみあっていたからに

止はむろんのこと、公権力を行使しない公務員への就職の門戸の解放、そして教育権ということでは、初等教育においては、外国人学校であつても無償とされるべき措置がとられること、民族学校を学校教育法一条の「学校」として認め、上級学校への進学教育資金の助成措置を講ずる。等々の処遇が検討されたうえで改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この規約が批准されたからといって、在日同胞の諸権利が認められ、生活が安定すると思つては早計である。国会での規約審議をみても、内外人平等の精神を生かして改定すると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よい。在日同胞の諸権利として各地で展開された「児童手当」にしても、「適用する」といふ一つの方向性が示されたといつ

てはむろんのこと、公権力を行使しない公務員への就職の門戸の解放、そして教育権ということでは、初等教育においては、外国人学校であつても無償とされるべき措置がとられること、民族学校を学校教育法一条の「学校」として認め、上級学校への進学教育資金の助成措置を講ずる。等々の処遇が検討されたうえで改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この規約が批准されたからといって、在日同胞の諸権利が認められ、生活が安定すると思つては早計である。国会での規約審議をみても、内外人平等の精神を生かして改定すると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よい。在日同胞の諸権利として各地で展開された「児童手当」にしても、「適用する」といふ一つの方向性が示されたといつ

てはむろんのこと、公権力を行使しない公務員への就職の門戸の解放、そして教育権ということでは、初等教育においては、外国人学校であつても無償とされるべき措置がとられること、民族学校を学校教育法一条の「学校」として認め、上級学校への進学教育資金の助成措置を講ずる。等々の処遇が検討されたうえで改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この規約が批准されたからといって、在日同胞の諸権利が認められ、生活が安定すると思つては早計である。国会での規約審議をみても、内外人平等の精神を生かして改定すると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よい。在日同胞の諸権利として各地で展開された「児童手当」にしても、「適用する」といふ一つの方向性が示されたといつ

てはむろんのこと、公権力を行使しない公務員への就職の門戸の解放、そして教育権ということでは、初等教育においては、外国人学校であつても無償とされるべき措置がとられること、民族学校を学校教育法一条の「学校」として認め、上級学校への進学教育資金の助成措置を講ずる。等々の処遇が検討されたうえで改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この規約が批准されたからといって、在日同胞の諸権利が認められ、生活が安定すると思つては早計である。国会での規約審議をみても、内外人平等の精神を生かして改定すると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よい。在日同胞の諸権利として各地で展開された「児童手当」にしても、「適用する」といふ一つの方向性が示されたといつ

てはむろんのこと、公権力を行使しない公務員への就職の門戸の解放、そして教育権ということでは、初等教育においては、外国人学校であつても無償とされるべき措置がとられること、民族学校を学校教育法一条の「学校」として認め、上級学校への進学教育資金の助成措置を講ずる。等々の処遇が検討されたうえで改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この規約が批准されたからといって、在日同胞の諸権利が認められ、生活が安定すると思つては早計である。国会での規約審議をみても、内外人平等の精神を生かして改定すると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よい。在日同胞の諸権利として各地で展開された「児童手当」にしても、「適用する」といふ一つの方向性が示されたといつ

### 関西韓国YMCA

#### 朴昭裕指導員



関西韓国YMCAのスタッフ  
フは、幹事・指導員合わせて  
三人しかいないが、すべて二

十代で、若さにあふれている。昭裕君はもともと若く二十五才で、少年サッカー・スクール・公教育の民族学級指導等多くのプログラムをこなしている。昭裕君の持ち味は、何と言つても何事にも体でぶつかつていくフアイトあふれる姿勢である。普通の大人なら子供と同じ運動量をこなせば一時間もしないうちにバテてしまふものだが、昭裕君の場合むしろ子供の先頭に立ってぐいぐい子供達を引っばつていくのである。そんな昭裕君を子供たちは信頼し、したがって何のさかすかしてYMCA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子

## 関西韓国YMCAの偉丈夫 少年サッカー公教育の 民族学級も指導

供たちが、昭裕指導員に会い、たくてYMCAを訪れることもままある。全国婦人会の研修会で、YMCAが子供を預けてプログラムを組んだ時、昭裕君の指導のもとで生き生きと遊ぶ子供たちの姿を見て、そうそうたる婦人会の人たちが教育に自信をなくしたという話もあるとか……

昭裕君は子供たちばかりでなく、地域の大人の信頼をもかち得ている。この間も、子供の教育全般について相談に來ていた若いオモニがいた。昭裕君の適切なアドバイスによって、自信をなくしていたそのオモニはみるうちに自信を回復し、別人のようになつて帰つていった。

これらのことは、様々なハシナイを負わされている在日

## 今夏も多様な プログラムで 関西韓国YMCA



関西Yの夏のキャンプ(昨年)

という基本姿勢を貫くなかでこの規約は強い武器となるというところである。

民族差別は、根底的には日本の排外主義によって生み出されているといつてよい。このように

な点から人権規約の批准を見る

と、日本の排外主義の克服が、規約の精神をどこまで生かし切つて行くかによつて問われているといつてもよい。

主の導きの下、大きな成果を持つて無事に終わることを祈るものである。

YMCA  
夏期少年海洋キャンプ募集  
期間：七月二日～二八日  
場所：大阪府青少年海洋センター  
募集：小学生三十名  
申込み：関西韓国YMCA  
電話：(06) 731-1188 五  
△訂正△  
本紙第三五五号(五月十五日)一面「オムツ」を「オムツ」の誤りとして訂正。また、一面「オムツ」を「オムツ」の誤りとして訂正。また、一面「オムツ」を「オムツ」の誤りとして訂正。

### 特別廉価大売出

- ◎マカベ講義  
金元治牧師著作集  
廉価格 一、〇〇〇円
- ◎韓国基督教史  
吳允吉牧師著  
廉価格 一、〇〇〇円
- ◎韓国基督教史  
吳允吉牧師著  
廉価格 一、〇〇〇円
- ◎歴史小説「ハナ」の役者  
宣教70周年記念説教集  
廉価格 各一、〇〇〇円
- ◎洪顯高博士著作全集 五巻  
①説教 ②神学 ③人生 ④生活 ⑤随想 ⑥詩歌  
廉価格 五、〇〇〇円(送料別)
- ◎イ・ソク 本邦初版  
注文処 総会事務所

###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区錦三丁目1番地)  
電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71)4398

### 食品・薬品包装業

##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代)

## 永松永製菓株式会社

本社 愛知県小牧市大字西之島330  
電話 (0568) 72-1211~5  
営業所 名古屋市西区見玉町1-6  
電話 (052) 531-1180